2026년 11월 4주차 평촌교회 소그룹 나눔지

왕 앞에 함께 무릎 꿇는 우리

(로마서 14:7 – 11)

✝ 말씀 나누기

1. 실수하거나 마음이 힘들었을 때, 누군가 먼저 다가와 따뜻하게 대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멜리데섬 사람들이 추위에 떨던 바울 일행을 위해 불을 피워 주었듯이, 이번 주에 우리가 먼저 따뜻함을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부를 묻거나 작은 선물을 전하기, 함께 식사하기 등 실천할 일 한 가지를 나누어 봅시다.

✝ 함께 기도하기

1. 왕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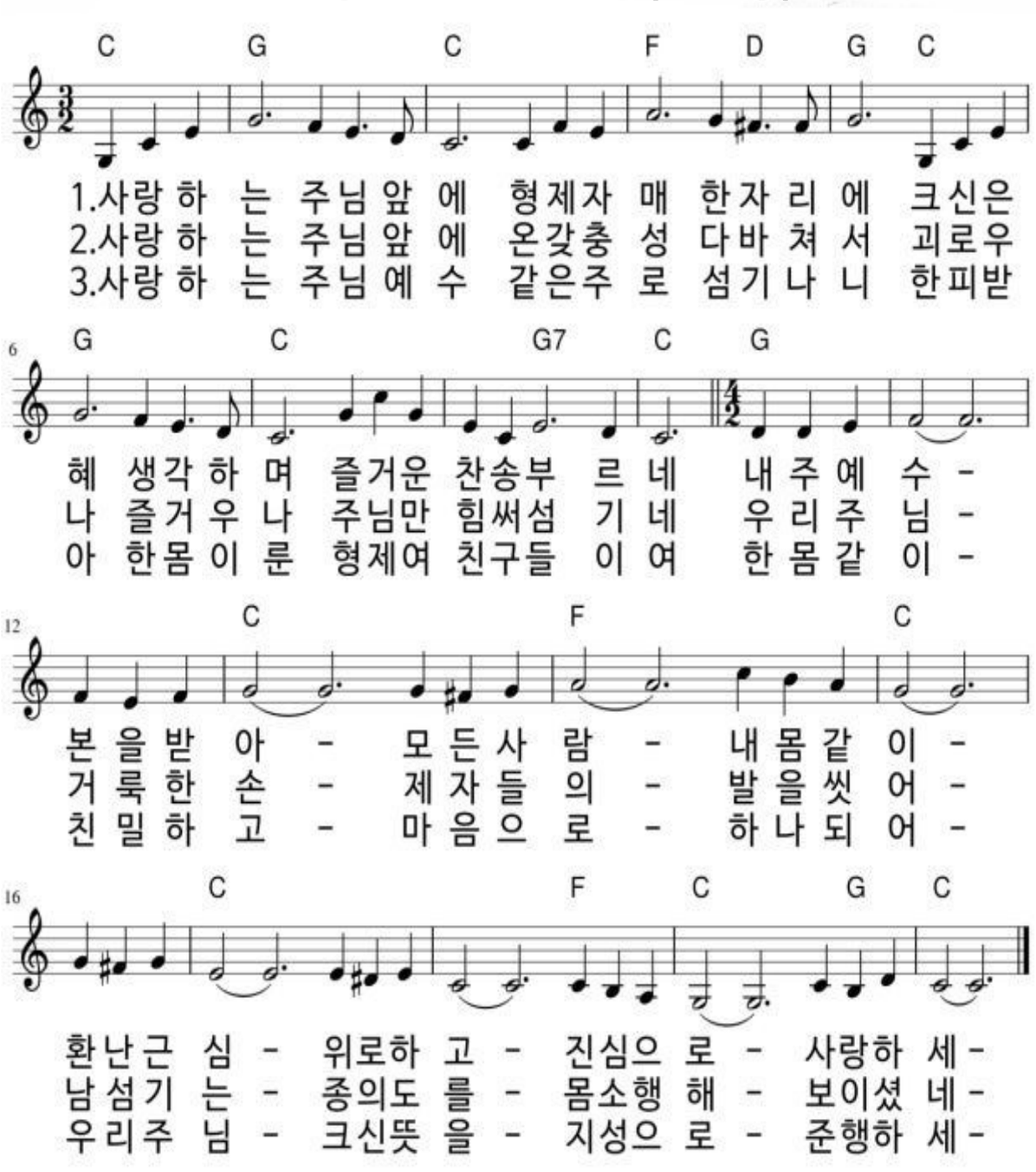
왕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도 전에 판단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같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의견이 다른 이도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 주신 귀한 형제자매로 대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 주게 하옵소서.

2.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먼저 손 내미는 기도

사랑의 주님, 비에 젖어 추위에 떨던 바울 일행을 위해 멜리데섬 사람들이 불을 피워 주었듯이, 우리도 곁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살피게 하옵소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지친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홀로 있는 이와 기꺼이 밥 한 끼를 나누게 하옵소서. 누군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던 우리에게 손 내밀 용기를 주시고,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 찬양하기 ♫

사랑하는 주님 앞에(220장)



✝ 설교 요약하기

도입 |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돌아봅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고기를 먹는 성도와 채소만 먹는 성도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했습니다. 두 편 모두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한 식탁에 앉은 이들이 서로 멀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본론 1 | 그 사람도 왕의 사람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음식을 먹는 문제로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누가 옳은지를 따지기에 앞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고기를 먹는 성도도, 먹지 않는 성도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모두 받아 주셨기에, 우리도 생각과 기준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 속한 형제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스스로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문밖에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오랜 기준을 바꾸었듯이, 주님께서 받아 주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론 2 | 왕은 그를 위해서도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으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그 사람은 같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기에, 그를 대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처럼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제자들이 있었고, 훗날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먼저 사랑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받아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본론 3 | 왕 앞에 함께 무릎 꿇는 사람은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같은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도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를 주님께서 받아 주신 형제자매로 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배가 난파되어 멜리데섬에 닿았을 때, 섬 사람들은 비에 젖어 추위에 떨던 이들을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생각이 달라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거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건네는 작은 친절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결론 | 먼저 받은 사랑으로 손 내밀기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 왕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같은 왕 앞에 함께 무릎 꿇는 우리는 먼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앞둔 이번 한 주, 마음이 멀어진 이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고 밥 한 끼를 나누며, 그 작은 순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